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7, Vol. 19 No. 2, 375-392

진로장애와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검증

이 상 희†

광운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확인하고, 성차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는 대학생 1024명(남학생 483명, 여학생 541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결정장애 척도, 진로자기효능감 척도, 사회적지지 척도, 진로태도성숙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하여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애의 모든 하위요인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자기효능감은 진로장애의 모든 하위요인에 대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진로장애의 하위요인에 따라 매개효과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고 있었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집단에서는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가 있었지만, 진로장애의 지각이 낮은 경우일 때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넷째, 진로장애의 연구에서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태도성숙

† 교신저자 : 이상희,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139-701)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1
Tel : 02) 940-5420, Email : sanglee@kw.ac.kr

www.kci.go.kr

최근 들어 취업, 진학, 승진 등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과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하는 진로장애요인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Fitzgerald, Fassinger, & Betz, 1995; Lent, Brown, & Hackett, 2000; Mcwhirter, 1997). 진로장애란 진로와 관련된 여러 수행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모든 내적, 외적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변인이다(Fitzgerald et al., 1995; Lent et al., 2000). 진로장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Swanson과 Daniels(1995b)는 직업이나 진로계획상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인을 진로장애로 보았으며, Swanson과 Woitke(1997)는 개인 내부나 환경 속에서 진로진행을 어렵게 하는 사건이나 조건을 진로장애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진로결정을 중요한 진로문제로 보고, 미래의 진로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진로장애로 정의하였다(Tak & Lee, 2003).

일반적으로 진로장애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장인 여성이나 소수민족에게서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uzzo, 1995; McWhirter, 1997; Swanson & Daniels, 1994; Swanson & Tokar, 1991b). Swanson 등(1991b, 1994)의 연구는 대학생들도 진로장애의 하위유형들에서 일관적인 성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와 관련하여 더 많은 장애들을 지각하고 있었다. Luzzo(1995)도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과 관련된 장애요소를 더 많이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국내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손은령(2001)은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진로장애를 더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은영(2001)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장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하였다. 이명숙(200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이문제와 경제적인 장애요인을 제외한 전반적인 진로장애의 지각이 여학생에게서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기학(2003)의 연구에서는 진로장애 전체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직업정보부족에서는 여학생이, 필요성인식부족에서는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의 연구결과들로는 진로장애의 성차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차를 고려한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진로장애는 개인의 적절한 진로발달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진로장애를 지각하는 것은 개인의 진로선택과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Gottfredson, 1981). 그러나 지금까지 진로장애를 조사한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진로장애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통제감이 약화되거나(Luzzo, 1996), 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Shuttleworth, 1992)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에 부정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제시되었다(Lent, Brown, Brenner, Chopra, Davis, Talleyrand, & Suthakaran, 2001; Luzzo & Jekins-smith, 1996). 결론적으로 진로장애는 개인의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선형관계로 볼 수 없으며, 다른 여러 가지 변인이 관련되어 있거나, 선정된 집단에 따른 특성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들은 진로장애의 지각이 직접적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Lee,

www.kci.go.kr

1994; Luzzo, 1996; Shuttleworth, 1992; Swanson, Daniels, & Tokar, 1996), 여러 변인들을 통하여 복잡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따라서 진로장애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진로장애와 진로발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로장애에 대한 개입방법 및 상담 모형개발 등에 대한 것은 이론적으로만 논의되고 있을 뿐(London, 1997), 실제적으로 진로장애와 진로발달에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 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들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언급한다(Bandura, 1997). Hackett와 Betz(1981)는 자기효능감을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성취행동, 진로결정 그리고 선택한 학문적 진로에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Hackett 등(1996)은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 같은 장애 요소에도 불구하고 강한 진로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된다고 보고했다(Hackett & Bryars, 1996). 이은경(2001)도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 대처하며 진로선택이나 목표, 혹은 진로 관련 행동을 수행하는데 진로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어떤 상황이 장애로 지각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지각한다면, 그 상황은 더 이상 장애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로장애가 개인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진로장애의 지각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자기효능감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Lent et al., 2000).

본 연구에서도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가정하여, 진로장애가 직접적으로 진로발달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진로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진로장애 요인들이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진로장애 요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것이며, 진로장애의 하위요인에 따라 매개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말한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Betz, 1989). Blustein (1997)은 인생 전체에서 일과 관련된 다양한 과업의 수행 시에 개인적 지지가 중요함을 논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진 대학생은 깊이 있는 진로탐색행동을 하는데 자유로움을 느끼며, 진로선택을 더 잘 준비한다고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는 오은경(2003)이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한수현(2003)도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의 진로미결정 수준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했다.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일관되게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진로장애가 주로 여성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이해되어 연구의 영역과 선택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진로장애와 사회적지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www.kci.go.kr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hen & Syme, 1985; Karasek & Theorell, 1990).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Cauce, Hannan, & Sargeant, 1992), 사회적 지지가 높을 때 위기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은 억제되고, 오히려 위기요인을 통하여 목표에 도달하려는 동기가 높아지기도 한다(Rosenthal, 1995). Treharne, Lyons와 Tupling(2001)도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사건에 관해 연구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여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진로장애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주는 중재변인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지각된 진로장애는 진로자기효능감 변인을 통해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진로장애요인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중재효과를 갖는지 확인할 것이다. 지각된 진로장애가 낮은 집단보다 지각된 진로장애가 높은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의 고/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 진로장애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성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진로장애와 관련된 변인들의 성차를 확인할 것이다.

방 법

대 상

서울 및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소재 4 년제 대학교 1,07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전체 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거나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48명을 제외한 총 1,024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대상의 학년 및 성별분포가 표 1에 제시되었다.

도 구

진로장애 척도

우리나라 대학생이 진로결정시 지각하는 어려움의 내용과 지각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Tak.과 Lee(2003)가 개발한 한국대학생 진로결정 장애검사를 사용하였다. 한국대학생 진로결정 장애검사는 직업정보부족 요인(6문항), 자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 체
남학생	108명(10.5)	121명(11.8)	118명(11.0)	136명(13.3)	483명(47.2)
여학생	109명(10.6)	151명(14.7)	130명(12.0)	151명(14.7)	541명(52.8)
전 체	217명(21.2)	272명(26.6)	248명(24.2)	287명(28.0)	1,024명

www.kci.go.kr

기명확성부족 요인(4문항), 우유부단성격 요인(4문항), 필요성인식부족 요인(4문항), 외적장애 요인(4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진로장애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장애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각 요인에 따라 .86, .81, .81, .78, .75로 나타났다.

진로자기효능감 척도

Betz와 Voyten(1997)이 구성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를 이은진(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목표선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등의 5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단축형의 근간이 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MSES: Taylor & Betz, 1983)는 진로결정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90이었다.

사회적지지 척도

황윤경(1996)이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척도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수정하여 표준화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 척도는 정보적지지(6문항), 정서적지지(7문항), 물질적지지(6문항), 평가적지지(6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박지원(1985)이 산출한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 척도

진로성숙을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태도성숙 검사는 결정성 차원(10문항), 준비성 차원(10문항), 독립성 차원(9문항), 목적성 차원(8문항), 확신성 차원(10문항)의 5개 하위영역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태도성숙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분 석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 분석을 위하여 SPSS 10.0을 사용하였고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4.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포화모형이므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피는 것이 무의미하여 적합도 지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상호작용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상관관계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전체, 남학생,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표 2에 제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진로장애의 경우 자기명확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정보부족과 우유부단 성격에서는

www.kci.go.kr

표 2. 전체, 남학생, 여학생의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변 인	남학생 M(SD)	여학생 M(SD)	전체 M(SD)	성별(*t*)	1	2	3	4	5	6	7	8
1 진로장애전체	54.2(14.7)	53.7(12.9)	53.9(13.7)	.55**								
2 직업정보부족	2.78(.87)	2.90(.85)	2.84(.86)	-2.10*	.82***							
3 자기명확성부족	2.57(1.03)	2.58(1.05)	2.58(1.04)	-.11	.79***	.56***						
4 우유부단성격	2.74(.93)	2.87(.88)	2.81(.91)	-2.20*	.73***	.49***	.53***					
5 필요성인식부족	1.90(.88)	1.59(.69)	1.73(.80)	6.42***	.51***	.26***	.26***	.16***				
6 외적장애	2.14(.84)	2.03(.74)	2.08(.79)	2.24*	.60***	.32***	.29***	.35***	.26***			
7 진로자기효능감	3.32(.55)	3.31(.51)	3.31(.53)	.41	-.60***	-.56***	-.54***	-.48***	-.21***	-.20***		
8 사회적 지지	3.72(.70)	3.87(.61)	3.80(.66)	-3.72***	-.38***	-.17***	-.30***	-.33***	-.25***	-.36***	.35***	
9 진로태도 성숙	3.49(.48)	3.53(.45)	3.51(.47)	-1.43***	-.63***	-.51***	-.53***	-.48***	-.30***	-.31***	.59***	.26***

*p<.05, **p<.01, ***p<.00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필요성인식 부족과 외적장애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자기효능감은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을 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진로장애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필요성인식부족과 우유부단성격을 제외한 모든 진로장애 하위요인들이 서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진로장애의 하위요인들과 진로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태도성숙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애는 진로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태도성숙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진로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는 진로태도성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장애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가장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 진로장애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진로장애 요인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VIF가 모두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전체 집단에서 진로장애 변인들은 진로태도성숙을 39.7% 예언하고 있었으며, 남학생 집단에서 38.9%, 여학생 집단에서 40.1% 예언하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에서 외적장애를 제외한 모든 진로장애 요인들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남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애 요인은 직업정보부족이었으며, 우유부

www.kci.go.kr

표 3. 진로장애가 진로태도성숙을 예언하는 정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예언변인	전 체(N=1024)		남학생 (N=483)		여학생 (N=541)	
	β	t	β	t	β	t
직업정보부족	-.214	-6.81***	-.261	-5.56***	-.190	-4.55***
자기명확성부족	-.254	-7.89***	-.161	-3.36**	-.306	-7.18***
우유부단성격	-.202	-6.57***	-.220	-4.76**	-.205	-5.07***
필요성인식부족	-.127	-4.87***	-.134	-3.46**	-.114	-3.26**
외적장애	-.064	-2.35	-.059	-1.47	-.064	-1.77
	R^2=.397 F=132.1		R^2=.389 F=134.45		R^2=.401 F=62.44	

**p<.01, ***p<.001

단 성격, 자기명확성부족, 필요성인식부족 순으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애는 자기명확성부족이었으며, 우유부단성격, 직업정보부족, 필요성인식부족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외적 장애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자기효능감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매개효과를 진로장애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진로장애의 하위요인에 따른 각 모형의 경로계수, 그리고 직접, 간접효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외적장애와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진로자기효능감의 외적장애와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로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표 4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외적장애는 진로태도성숙에 직접효과 -.24,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08로 전체 -.33의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외적장애는 진로태도성숙에 직접효과 -.14, 간접효과 -.14로 전체 -.29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남학생은 직접효과가 간접효과보다 크게 미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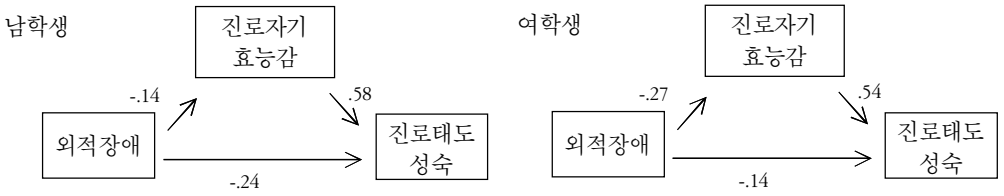

그림 1. 외적장애와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www.kci.go.kr

표 4. 진로장애 하위요인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 매개모형의 직접, 간접, 전체효과

	종속변인 : 진로태도성숙							
	남학생(N=483)				여학생(N=541)			
예언변인	직접	간접	전체	R^2	직접	간접	전체	R^2
외적장애	-.24***	-.08	-.33	.43***	-.14***	-.14	-.29	.35***
우유부단 성격	-.29***	-.22	-.51	.44***	-.24***	-.23	-.47	.37***
필요성인식부족	-.20***	-.14	-.34	.41***	-.15***	-.10	-.25	.35***
직업정보부족	-.28***	-.25	-.53	.43***	-.24***	-.25	-.49	.37***
자기명확성부족	-.28***	-.23	-.50	.43***	-.32***	-.23	-.55	.40***

**p<.01, ***p<.001

있었으나 여학생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부단성격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진로자기효능감의 우유부단성격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로모형은 그림 2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표 4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우유부단성격은 진로태도성숙에 직접효과 -.29,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22로 전체 -.51의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우유부단성격은 진로태도성숙에 직접효과 -.24, 간접효과 -.23로 전체 -.47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진로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에 .45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필요성인식부족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진로자기효능감의 필요성인식부족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로모형은 그림 3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표 4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필요성인식부족은 진로태도성숙에 직접효과 -.20,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14로 전체 -.34의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필요성인식부족은 진로태도성숙에 직접효과 -.15, 간접효과 -.10으로 전체 -.25의 영향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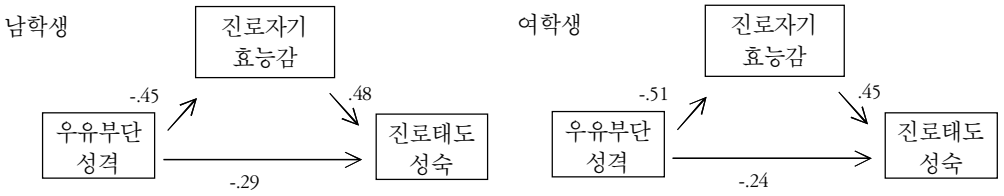

그림 2. 우유부단성격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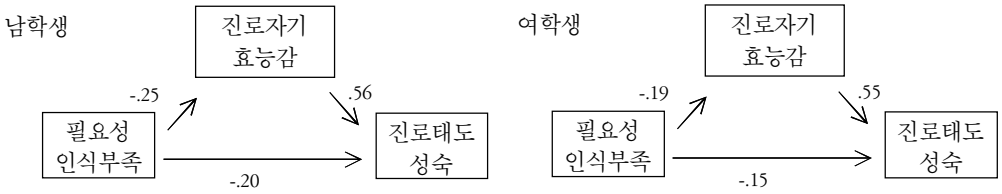

그림 3. 필요성인식부족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치고 있었다.

직업정보부족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진로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부족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로모형은 그림 4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표 4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직업정보부족은 진로태도성숙에 직접효과 -.28,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25로 전체 -.53의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직업정보부족은 진로태도성숙에 직접효과 -.24, 간접효과 -.25로 전체 -.49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기명확성부족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진로자기효능감의 자기명확성부족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로모형은 그림 5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표 4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자기명확성부족은 진로태도성숙에 직접효과 -.28,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23으로 전체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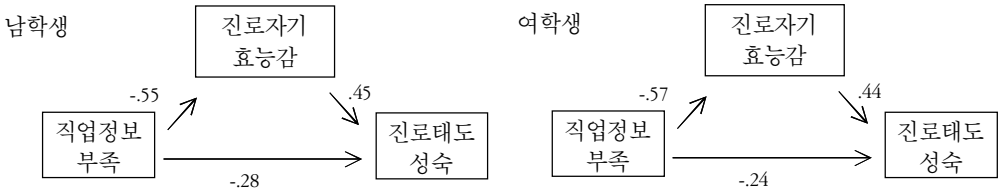

그림 4. 직업정보부족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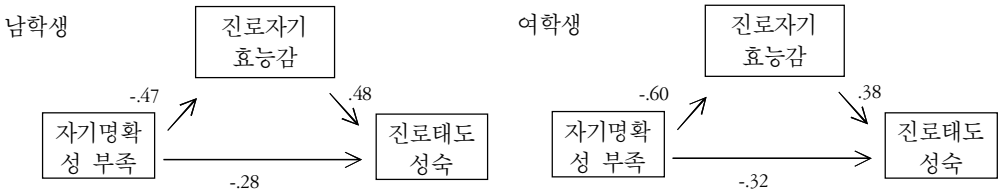

그림 5. 자기명확성부족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www.kci.go.kr

의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자기명확성부족은 진로태도성숙에 직접효과 -.32, 간접효과 -.23로 전체 -.55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지각된 진로장애가 높을지라도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면, 진로장애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의 수준에 따른 중재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우선 진로장애의 하위 유형별로 진로장애 중앙치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50%를 진로장애가 높은 집단으로, 하위 50%를 진로장애가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회적지지의 중앙치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50%를 사회적지지가 높은 집단으로, 하위 50%를 사회적지지가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진로장애만을 회귀식에 포함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부터는 사회적지지를 단계적으로 회귀식에 포함시켜 진로장애와 상호작용하는가를 검증하였다.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에 대한 결과는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온 진로장애들과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진로장애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온 진로장애들은 각 집단의 평균을 구하여 그림을 제시하였다.

외적장애, 우유부단성격, 자기명확성부족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모델 1에서 외적장애, 우유부단 성격, 자기명확성 부족과 사회적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집단 모두에서 외적장애, 우유부단 성격, 자기명확성 부족과 사회적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사회적지지가 중재역할을

표 5. 외적장애, 우유부단성격, 자기명확성부족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종속변인 진로태도성숙											
독립변인	외적 장애 (β)				우유부단 성격 (β)				자기명확성 부족 (β)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진로장애	-.25***	-.31***	-.24***	-.24***	-.47***	-.42***	-.44***	-.45***	-.46***	-.46***	-.53***	-.53***
사회적지지	.18***	.24***	.16***	.16***	.11**	.14**	.09*	.10*	.14**	.20***	.09*	.09*
진로장애*사회적지지		-.30***		.011		-.18***		-.02		-.24***		-.02
R^2	.133	.215	.106	.106	.268	.298	.232	.232	.267	.321	.312	.313
ΔR^2		.082		0		.030		0		.054		.001
ΔF	15.29***	49.73***	14.77***	.075	6.75*	20.53***	5.62*	.277	10.93**	38.25***	6.40*	.321

*p<.05, **p<.01, ***p<.001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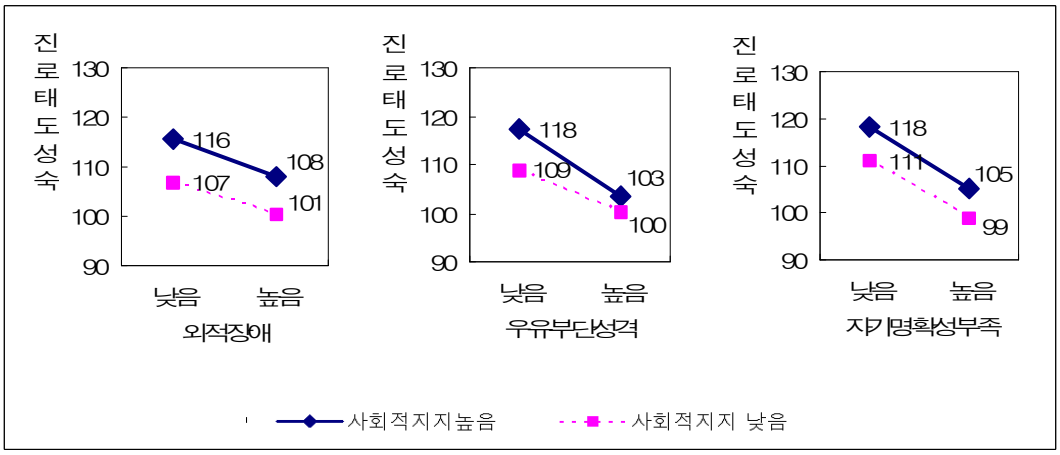

그림 6. 남학생의 외적장애, 우유부단성격, 자기명확성부족 고/저, 사회적지지 고/저 평균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지지와 진로장애(외적장애, 우유부단 성격, 자기명확성 부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 집단에서는 진로장애(외적장애, 우유부단 성격, 자기명확성 부족)*사회적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의 경우 모델 2의 설명력이 모델 1의 설명력보다 증가하여, 사회적지지가 진로장애(외적장애, 우유부단 성격, 자기명확성 부족)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 집단은 진로장애(외적장애, 우유부단 성격, 자기명확성 부족)와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남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를 확인하여 그림 6에 제시하였다. 확인결과, 진로장애(외적장애, 우유부단 성격, 자기명확성 부족)가 높은 집단이나 낮은 집단 모두에서 진로장애(외적장애, 우유부단 성격, 자기명확성 부족)와 진로태도성숙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진로장애(외적장애, 우유부단 성격, 자기명확성 부족) 수준과 관계없이 진로태도성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달리 진로장애(외적장애, 우유부단 성격, 자기명확성 부족) 수준이 높은 경우 보다 수준이 낮은 경우에서 사회적지지 고/저에 따라 평균값이 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장애(외적장애, 우유부단 성격, 자기명확성 부족)가 높은 경우에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필요성인식부족, 직업정보부족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모델 1에서 필요성인식부족, 직업정보부족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집단 모두에서 필요성인식부족, 직업정보부족과 사회적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장애(필요성인식부족, 직업정보부족)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낮다는 것을 알

www.kci.go.kr

표 6. 필요성인식부족, 직업정보부족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종속변인	진로태도성숙							
독립변인	필요성인식 부족 (β)				직업정보 부족 (β)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진로장애	-.28***	-.29***	-.22***	-.22***	-.50***	-.49***	-.47***	-.47***
사회적지지	.21***	.22***	.19***	.19***	.19***	.19***	.15***	.15***
진로장애*사회적지지		-.08		-.007		-.03		.013
R^2	.155	.161	.098	.098	.320	.321	.265	.265
ΔR^2		.006		0		.001	.	0
ΔF	22.61***	3.77	21.47***	.027	25.06***	.749	16.14***	.128

***p<.001

수 있었다. 모델 2에서는 사회적지지가 중재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지지와 진로장애(필요성인식부족, 직업정보부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진로장애(필요성인식부족, 직업정보부족)*사회적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필요성인식부족, 직업정보부족의 경우 사회적지지의 중재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진로장애는 진로태도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진로장애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진로태도성숙을 약 40% 예언하고 있었으며, 진로장애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장애의 하위요인에 따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에서 진로태도성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진로장애요인은 직업정보부족이었으며, 우유부단성격, 자기명확성부족 순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자기명확성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이었으며 우유부단성격, 직업정보부족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에서 필요성인식부족과 외적장애는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외적장애는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장애 하위요인별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에서 남학생, 여학생 모두가 가장 높은 장애로 지각하고 있는 것은 직업정보부족이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다. 현대사회는 지식기반 사회정보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직업세계가 급격히 변

www.kci.go.kr

화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직업들이 창출되고 있다. 따라서 취업을 위해 알아야 할 지식이나 정보의 양이 나날이 증가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직업정보부족을 가장 높은 진로장애로 인식하는 것 같다.

둘 째, 진로장애의 모든 요인들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은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진로장애를 주로 맥락적인 영역으로 한정하여 왔으며(Lent et al., 2000), 따라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주로 외적장애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어 왔다(Lent et al., 2001; Lent, Brown, Schmidt, Brenner, Lyons, & Treistman, 2003). 그러나 연구결과, 진로자기효능감은 진로장애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더욱이 외적장애 요인보다 다른 장애요인에서 매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직업정보부족과 자기명확성부족, 우유부단성격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적장애와 필요성인식부족에서의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진로장애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셋 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진로장애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변인으로 가정되었으며, 특히 지각된 진로장애가 높을 경우에 사회적 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진로장애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진로장애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연구의 가설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진로장애의 지각이 높을 경우에 사회적 지지의 고/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차이가 클 것으로 가정했는데, 오히려 진로장애의 지각이 낮을 경우에 진로태도성숙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진로장애가 낮은 경우일 때,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진로장애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자체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설명하여 왔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내리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신중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진로장애의 영향이 사회적 지지의 영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진로장애가 높게 지각되면 사회적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지지 척도의 적절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지지 척도였기 때문에, 진로장애에 대한 특정된 사회적 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에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예로, 대학생들이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직업정보부족 같은 경우, 이러한 진로장애 극복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직업심리학이나 진로상담 분야에서는 성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도 진로장애와 관련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www.kci.go.kr

그 결과, 필요성인식부족과 외적장애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직업정보부족과 우유부단 성격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척도를 사용한 이기학(2003)의 결과에서도 진로장애 전체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업정보부족은 여학생이, 필요성인식부족은 남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정보부족은 여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필요성인식부족은 남학생이 높게 지각한다는 부분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Larson (1994) 등은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의사결정에서 외적 장애가 더 많은 것으로 지각한다고 보고하였으며(Larson, Butler, Wilson, Medora, & Allgood, 1994), Creed(2004)등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지각하는 외적장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Creed, Patton, & Bartrum, 2004). 따라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도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는 가장 높게 지각되는 직업정보부족이 진로태도성숙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기명확성부족이 진로태도성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가장 높게 지각하는 진로장애는 직업정보부족이지만, 여학생들의 진로발달에는 자기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장애 요인들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성차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여학생의 진로장애를 다루어 줄 때는 직업정보의 제공 이외에도 자기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한 탐색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부족, 우유부단성격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장애와 필요성인식부족에서의 매개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적장애의 경우 남학생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진로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진로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적장애가 주어질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 진로자기효능감에 따라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reed (2004) 등은 여학생의 경우에는 외적장애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없으며, 남학생에게만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확인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에서도 성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요성인식부족과 직업정보부족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외적장애, 우유부단성격, 자기명확성부족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른 성차가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가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지는 않았으나, 외적장애, 우유부단성격, 자기명확성부족에서 남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학생은 사회적지지의

www.kci.go.kr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사회적지지가 개인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지지가 개인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따라서 진로장애도 대학생의 진로발달 과업에 맞추어 정의되었다. 진로장애 개념에 대한 정의는 대상이나 발달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진로장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다양한 경우의 진로장애에서도 설명력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만이 아닌 보다 많은 개인 변인들을 포함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모형은 진로태도성숙을 약 40% 정도 설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모형에서 확인하지 못한 다른 변인들인 흥미, 진로미결정 여부, 학업성취 수준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방법은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실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에서는 실제적으로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객관적인 진로장애 대상 집단을 선정하여 자기보고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근교, 제한된 몇 지역의 대학생을 위주로 표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편중되지 않은 샘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은영 (2001).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오은경 (2003). 사회적 지지와 의사결정 유형, 진로 성숙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기학 (2003). 대학생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일치여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장애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353-366.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분석.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수현 (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 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

www.kci.go.kr

원 석사학위 논문.

황윤경 (1996).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서울시 중학교, 인문계 고교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Betz, N. E.(1989).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17,* 136-144.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

Blustein, D. L. (1997).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260-274.

Cohen, S., & Syme, S. L. (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San Diego: Academic Press.

Creed, P.A., Patton, W., & Bartrum, D.(2004). Internal and external barriers, cognitive style, and the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of focus and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 277-294.

Fitzgerald, L. F., Fassinger. R. E., & Betz, N. E. (1995). Theoretical advances 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B. Walsh & S.H. Osipow(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67-110).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Gottfredson, G. D.(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s: A 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Hackett, G., & Betz, N. E. (1981). Self efficacy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Hackett, G., & Byars, A. M. (1996). Social cognitive theory and the career development of African American wome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322-340.

Karasek, R., & Theorell, T. (1990). *Healthy work: Stress, productivity, and reconstruction of working life*. New York: Basic Book.

Larson, J. H., Butler, M., Wilson, S., Medora, N., & Allgood, S.(1994). The effects of gender on career decision problems in young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79-84.

Lee, J. I.(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lf-efficacy expectations and career decision status at the college level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Lent, R. W., Brown, S. D., Brenner B., Chopra, S. B., Davis, T., Talleyrand, R, & Suthakaran, V. (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474-483.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49.

London, M.(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25-38.

Luzzo, D. A. (1995).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www.kci.go.kr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319-322.

Luzzo, D. A.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 239-248.

Luzzo, D. A., & Jekins-Smith, A. (1996). Perceived occupational barriers among Mex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TCA-Journal, 24(1),* 1-8.

McWhirter, E. H. (1997).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24-140.

Rosenthal, B. S. (1995).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school completion among Haitians. *Social Work in Education, 17,* 30-39.

Sepich, R. T. (1987). A review of the correlates and measurem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4(1),* 8-23.

Shuttleworth, C .L. (1992). The effects of perceived barriers on College women's occupational cho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Swanson, J. L., & Daniels, K. K. (1994). *The relation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raw data,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Swanson, J. L., & Daniels, K. K. (1995b).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 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Swanson, J. L., & Tokar, D. M. (1991b).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344-361.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31-450.

Tak, J. K.,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328-345.

Treharne, G. J., Lyons, A. C., & Tupling, R. E. (2001). The effects of optimism, pessimism, social support, and mood on the lagged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and symptoms. *Current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7(5),* 60-81.

Wheaton, B. (1985). Models for the stress-buffering functions of coping resources.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26,* 352 - 364.

원 고 접 수 일 : 2006. 10. 21
수정원고접수일 : 2007. 3. 20
게 재 결 정 일 : 2007. 3. 30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7, Vol. 19 No. 2, 375-392

Examination of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Sang-Hee Lee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s and gender differ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First, all subcomponents of career barriers contributed to career attitude maturity. Seco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ird, the results did not support the hypothesis that social support w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which suggest that gender differences should be considered in career barriers research.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career attitude maturity.

www.kci.go.kr